

La Belle Dame sans Merci에 나타난 話者의 역할

李 廷 鏞

낭만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상상력이 시 속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있다. 낭만 시인들은 상상력의 진정한 정의를 개인적인 관점에서 항상 추구해 왔으며, 자기들의 시 속에 상상력의 정의를 함축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진정한 낭만시인으로서, 키츠 역시 이런 낭만 시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에 예외가 될 수 없다. 그가 길지않은 일생을 상상력의 진정한 의미를 추구하는 데 온통 바쳤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의 궤적을 우리는 그의 시의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키츠의 상상력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 점에 유의해 봐야 할 것이다. 우선, 그는 서로 상반되는 특질을 서로 융화하고 동시에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며, 그럼으로써 그의 시 속에서 그는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반대와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키츠는 삶 자체를 모순이 합쳐진 총체라고 보았으며, 이러한 그의 인생관을 그의 시 속에 내포했다는 데에 그의 시적인 천재성이 있다. 그는 즐거움과 슬픔, 이상과 현실, 삶과 죽음, 영원과 순간같은 서로 상반되는 특성들이 기본적으로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함께 융화되어 공존한다고 믿었다. 키츠의 이러한 상상력에 관한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용어로, 필자는 여성원리(the feminine principle)라는 말을 쓰려고 한다. 이는 현재로서는 이보다 더 적합한 용어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며, 또한 다른 면에서는 키츠의 시에 나타난 시적상상력을 가장 잘 포괄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우선 위에서 쓴 여성원리라는 용어에서 “여성”이라는 용어는 여성의 원형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개념으로서, 여성은 신화에서는 여신이라는 일면과 또한 유혹자라는 상반되는 두가지의 특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¹⁾ 이러한 의미에서, “여성”이라는 개념은 생물학적이거나 성별을 나타내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La Belle Dame sans Merci*에 나타난 여성원리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시는 시인이 이상적인 시적 상상력의 대상을 추구하는 동안 세상의 현실과 점점 유리되어 결국에 가서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시에 나오는 요정은 상상력의 기만적이고 파괴적인 측면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사는 파멸로 이끄는 요정을 만난 뒤, 그를 발견한 話者와의 대화를 통하여 가까스로 자신의 위치를 찾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에 나오는 話者의 위치는 키츠가 그의 여성원리를 발전시켜 가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키츠는 이 시의 원본을 미국에 있는 동생 George와 계수 Georgiana에게 보낸 1819년 4월 21일의 편지에 써서 보냈다(Letters, II. 95-96). 본 논문에서는 이 편지에 동봉했던 시를

1) Joseph Campbell, *The Hero with a Thousand Faces*(Princeton Univ. Press, 1949; rpt. 1973), pp. 109-126.

텍스트로 쓸 것을 밝혀둔다(키츠가 후에 수정한 이 시의 수정본은 많은 평자들에 의해 원본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이 시를 Elliot Gilbert같은 사람은 “모든 문학적인 담시 중에서 아마도 가장 완전한 것”²⁾이라고 평한다. Walter Evert의 주장에 따르면, 1818년 9월 21일부터 1819년 9월 21일까지의 소위 “기적의 해”³⁾동안에 쓰인 시 중에서 어느 시도 “간결의 극치인 *La Belle Dame*보다도 더 후세에 영향력과 명성을 남긴 시가 없다”고 한다.⁴⁾ 세월이 지남에 따라, 이 시는 여러 평자에 의해서 각양각색의 평가를 받았다. 그러므로, 여성원리라는 문맥에서 이 시를 읽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시가 지금까지 받은 평들을 간략하게 정리 분석하는 것도 유용하리라 본다.

많은 평자들은 이 시를 전기적이며, 심리적인 측면에서 다뤘다.⁵⁾ 이 부류로 보는 비평가들은, 키츠와 Fanny Brawne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애정의 고뇌와 또한 그로 인한 정력의 낭비라는 면에서 주로 이 시를 읽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쓰인 이 시의 해석을 읽는데 있어서는, Walter Jackson Bate의 다음과같은 충고를 들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즉, 그는 “키츠의 생애에 나타나는 어떤 사실이라도 이 시 자체를 읽는데 도움도 되고, 방해도 되며, 또한, 이 시 자체의 해석을 완전히 대체할 수도 있다.”⁶⁾ (즉, 보기에 따라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인다). Aileen Ward같은 이가 이런 전기적—심리적 비평가 중의 하나인데, 그녀는 키츠의 소년기의 자기 어머니와의 관계가 그의 애정시와 설화시를 읽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Ward는 또한, 키츠와 그의 어머니와의 관계가, 그가 후에 성장하여 Fanny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 Ward는 키츠의 어머니가 프로이트의 심리학에 입각한 음식물의 공급자이며 또한 제어자라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어머니의 원형이 그의 시에서는 착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양면적인 여성인물로 나타났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Keats's mother, a woman fond of eating and drinking and a “doting parent” who, we are told, loved, and indulged him even more than she did her other children, had withdrawn her love from

- 2) Elliot Gilbert, *The Poetry of John Keats*(N.Y.: Simon and Schuster, 1965), p. 35.
- 3) Robert Gittings, *John Keats: The Living Year, 21 Sept. 1828 to 21 Sept. 1819*(N.Y.: Barnes and Noble, 1965).
- 4) Walter H. Evert, *Aesthetic and Myth in the Poetry of Keats*(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1965), p. 244.
- 5) For biographical interpretations of the poem, see Edward Bostester, *The Romantic Ventriloquists: Wordsworth, Coleridge, Keats, Shelley, Byron* (Seattle: Univ. of Washington Press, 1963); Sidney Colvin, *John Keats: His Life and Poetry, His Friends, Critics, and After-Fame*(London: Macmillan, 1917), p. 350; Claude L. Finney, *The Evolution of Keats's Poetry*(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1936), II. 593; Robert Gittings, *John Keats*(London, 1968), pp. 113-123; Amy Lowell, *John Keats*(Boston: Houghton Mifflin, 1925), II. 225; John Middleton Murry, *Keats and Shakespeare: A Study of Keats's Poetical Life from 1816 to 1820*.
- 6) For Freudian interpretations of the poem, refer to Gerald Enscoe, *Eros and Romanticism: Sexual Love as a Theme in Coleridge, Shelley and Keats*(The Hague: Mouton, 1967), pp. 132-142; Albert Mordell, *The Erotic Motive in Literature*(N.Y.: Octagon 1976), pp. 149-157, *passim*; Aileen Ward, *The Making of a Poet*(N.Y.: Octagon, 1963; rpt. 1982), pp. 272-275 and 308-310; and Arthur Wormhoudt, *The Demon Lover: A Psychoanalytic Approach to Literature*(N.Y.: Exposition Press, 1945), pp. 70-87, *passim*.
- 6) Walter Jackson Bate, *John Keats*(Harvard Univ. Press, 1963), p. 478.

him in a shocking way shortly after his father's death. When she later returned home, he had reaffirmed his love for her by nursing her in her illness—feeding her, watching at her bedside as she slept.⁷⁾

위와같은 가정을 사용하여 Ward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펴다. 즉, “기사가 요정의 동굴에서 잠이 들었을 때, 그는 사랑과 따뜻함을 꿈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배반과 죽음을 본다.”⁸⁾ 이러한 심리적인 비평은 너무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는 외에도, 이런 심리학이 원용하는 중요한 프로이트의 가정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즉, 프로이트가 그의 학설의 기초로 삼는 시기는 대개 유아기의 경험(나서부터 약 만 세살까지)인데, 키츠가 7살이후에 가진 자기 어머니와의 관계는 그의 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한편 융의 심리학에서 본 이 시의 해석은 프로이트적인 해석이 해결 못하고 남겨 놓은 문제점들을 보완한다. Charles I. Patterson은 이 시를 융의 심리학의 관점에서 비평하면서, 이 시의 요정을 daimon적인 인물로 보고 있다(희랍철학에서는 daimon은 신과 인간과의 중간의 위치를 차지하는 존재로서, 신의 위치에 가까움). 이런 의미에서 이 요정의 처녀는 도덕적으로 중립이며(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으며), Robert Graves가 말하는 “White Goddess”⁹⁾처럼 창조적인 속성과 파괴적인 속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반면, Edward Craney Jacobs에 따르면, 기사는 anima의 원형을 찾아 나섰으며, 그가 anima에 홀린 나머지 개체화(individuation)를 성공적으로 이루지 못한다고 주장한다.¹⁰⁾ 프로이트적인 접근방법은 이 시를 이해하는데 많은 傳記적인 요소를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융의 심리학적 접근법은 이 시의 해석에 많은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위에서 본 Jacobs의 접근법은, 프로이트적인 접근법이 그랬듯이, 이 시를 융의 심리학을 뒷받침하는 case study로 삼는다는 인상을 준다. 우리가 여기서 필요로 하는 것은, 이 시를 더 잘, 더 깊이, 그리고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시의 이해에 많은 통찰력을 제공하는 융의 심리학이론을 원용해 보려는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이 시가 융의 심리학이론을 뒷받침 하는데 쓰이게 된다는 이율배반의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이러한 전기적이고 심리적인 접근방법이 초래하는 부작용을 감안하여, 일단의 비평가들은 이 시를 순수하게 문학적으로 접근하려고 시도해왔다. Earl Wasserman은 이같은 생각을 가진 비평가들 중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는 이 시를 대단히 알레고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Wasserman은 이 시에 나온 기사가 점점 더 초월의 경지에 올라가는데, 그가 완전한 초월의 경지에 도달하여 완전한 행복을 누리려는 순간 그가 단지 신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이유때문에,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만다는 것이다(Wasserman, *The Finer Tone: Keats's Major Poems*, p. 75). 반면, Francis Utley같은 평자는 위와같은 Wasserman의 의견을 반박하면서, 기사는 “지옥에서 온 요정”¹¹⁾인 이 요정에 의해서 속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7) Ward, *John Keats*, pp. 309-310.

8) Ward, p. 273.

9) Charles I, Patterson, Jr., *The Daemonic in the Poetry of John Keats*(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70), p. 20.

10) Edward Craney Jacobs, “Further Reflections on ‘La Belle Dame Sans Merci’ as Anima Archetype,” *Journal of Altered States of Consciousness*, 4, No. 3 (1978-79), 291-97.

11) Francis Utley, “The Infernos of Lucretius and of Keats’s *La Belle Dame Sans Merci*,” *ELH*, 25(1958), 121.

주장한다. 반면, Mario L. D'Avanzo같은 학자는, 키츠는 이 시에서 詩神의 추구를 메타포로서 나타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그는 이 추구의 과정을, “상상력이 상승하여, 성취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현실세계로 쇠락하여 돌아오는 시인(키츠)의 반원형의 과정을 완전히 나타내주는 것”¹²⁾이라고 한다. Stuart M. Sperry는, D'Avanzo보다 더 진전하여, 이 시에서 키츠는 그의 시학을 천명한다고 보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 시에 나오는 요정은 “무엇보다도 시의 진수를 나타내는데, 시의 진수란 ‘자연의 마력’에서 얻어지는 천부의 재능으로서, 우리의 일상의 경험을 매혹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통찰력으로 바꾸는 능력을 갖고 있다.”¹³⁾

이러한 잡다한 해석과 접근 방법에 만족하지 않고, 이 시의 전거(典據)와 유사물을 찾으려는 학자들도 있다.¹⁴⁾ 그러나, 이러한 전거를 찾으려는 학자들은, 그들의 노력에 비해 그 결과는 크게 의욕에 못 미쳐서, 그들의 업적이 이 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 Sperry가 지적했듯이, “잡다한 감춰진 감정과 예감에서 이 시의 마력이 나오는 것으로서,”¹⁵⁾이 잡다한 요소들은 단지 기계적인 전거와 출처의 추적으로서만은 밝혀질 수가 없다.

필자의 견해로는 위에 소개한 여러가지의 접근방법의 어느 하나도 이 시를 충분히 이해하는데 완전하지는 못하다. 비평가가 할 일은 이 시가 제기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평가들은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같이, 이 시가 키츠와 Fanny Brawne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고뇌의 정도를 어느 정도나 나타냈는가 또는 어느 특정한 다른 작품이 이 시를 쓰는 데 있어서 키츠에게 영향을 미쳤는가 등의 지엽말단적인 문제만을 다루는데 정력을 소비한 느낌이 든다. 또한, 요정의 천성이 좋다, 나쁘다 등을 알기 알부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가치판단 기준의 자를 가지고, 이 시를 보려는 시도까지 서슴치 않았다. Patterson이 언급한 것처럼, 요정은 가치 중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요정을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렇다 저렇다 논란하는 것 자체가 이 시를 정당하게 읽는 것과 하등의 연관성이 없다. 이 시를 올바르게 읽는 한가지의 가능한 방법은, 여성원리의 관점에서 보는 것일 수도 있다. 다음에서 필자는 이 시를 여성원리의 문맥에 놓고 접근함으로써 하나의 새로운 해석을 시도해 보려고 한다.

우리가 이 시의 구조를 살펴보면, 기사가 세상에서 유리되고 결국에 가서는 현실과의 접촉을 완전히 끊게 되는 과정을,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키츠가 전개시켰는가를 볼 수 있다. 첫 3연에서는, 우리는 話者의 눈을 통하여 단도직입적으로 그리고 생생하게 기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기사는 주위의 현실과 유리되어, 초원에서 홀로 창백하게 배회하고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화자는 그의 정체나 나이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그가 이 시에서 단지 이 가련한 기사와 말상대를 하기 위한 등장인물로서만의 기능 이외에 다른 기능이 없

12) Mario L. D'Avanzo, *Keats's Metaphors for the Poetic Imagination* (Durham, N.C.: Duke Univ. Press, 1967), p. 192.

13) Stuart M. Sperry, *Keats the Poet* (Princeton Univ. Press, 1973), p. 240.

14) See Finney, *The Evolution of Keats's Poetry*, II. 593-599; Amy Lowell, *John Keats*, II. pp. 220-225; E.C. Pettet, *On the Poetry of Keats* (Cambridge Univ. Press, 1970), pp. 217-219; Bernice Slotte, “The Climate of Keats's ‘La Belle Dame Sans Merci,’” *Modern Language Quarterly*, 21 (1960), 195-207; Francis Utley, “The Infernos of Lucretius and of Keats's *La Belle Dame sans Merci*,” *ELH*, 25 (1958), 105-121; Earl R. Wasserman, *The Finer Tone*, pp. 68-75; and Grant T. Webster, “Keats's ‘La Belle Dame’: A New Source,” *English Language Notes*, 3(1965), 42-47.

15) Sperry, *Keats the Poet*, p. 232.

다고 지레짐작한다면, 독자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¹⁶⁾ 그의 역할은(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만) 그 이상의 것이다. 話者在 묘사하는 자기 주위의 경치로 미루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話者는 기사와는 아주 대조적인 면이 있다. 그가 가을 경치를 찬탄하고(“The squirrel’s granny is full”) 또한 동시에 비어 있는 것(“The sedge has wither’d from the lake”)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때, 그는 이미 우리인생이 찬탄하며 동시에 비어있다는 生의 진리를 터득한 사람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기사에게 “오, 도대체 무슨 일이오, 기사! 혼자서 창백하게 배회하고 있으니?”라고 물을 때, 그의 질문이 아주 당돌하고 의미 심장함을 느낀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이런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당황하겠지만, 우리가 이미 이 話者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되면 우리의 당황은 조금은 누그러질 것이다.

기사는 話者의 이런 질문에 대하여, 4연에서부터 12연에 걸쳐 대답하고 있다. 4~8연에서 기사는 우선 자기가 어떻게 요정과 의 결합을 추구하는 동안 현실과 유리되게 됐는가를 이야기한다. 제 8연에서는 이 시는 절정에 이르는데, 기사는 요정의 동굴에서 요정과 깊은 관계를 맺은 듯하다. 여기서부터, 이 시의 끝까지, 기사의 경험은 계속 내리막길로 치달는다. 10~11연에 나오는 기사의 꿈에서는, 그는 창백한 왕과 왕자들이 “어둠속에서 바짝 탄 입술을 짖 벌리고,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가 이런 악몽에서 깨어나자, 그가 조금 전에 꿈 속에서 본 경고가 현실로 나타난 것을 본다. 그는 추운 산기슭에서, 동굴 밖에 홀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마지막 연에서, 기사는 서두에서 話者가 자기에게 묻은 질문을 되풀이함으로써 이 시를 끝맺고 있다.

And this is why I sojourn here
 Alone and palely loitering,
 Though the sedge has wither’d from the lake,
 And no birds sing. (11. 45-48)

話者가 이 시의 첫머리에 한 질문을 답변형식으로(“this is why...”) 다시 반복함으로써, 기사는 話者의 이 질문이 지금까지 내내 자기 마음 속에 길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키츠가 처음과 마지막 연을 이 질문을 통하여 연결함으로써, 그는 이 시에 일종의 순환 운동을 부여한다. 이런 순환성은 이시의 주제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돼 있다. 이러한 순환 운동은 인간현실을 지배하는 우주적인 원리로써, 이 시의 話者는 이런 원리를 이미 받아들여서 생활의 지침으로 삼고 있지만, 기사는 이런 순환운동의 원리를 알지도 못했던 듯하다. 기사는 환상적인 요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부지불식간에 행동했던 것이다. (순환원리가 우주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시에 나오는 話者와 비슷한 또 한 사람의 話者를 후에 *To Autumn*에서 다시 보게 된다). 이 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더 자세하게 기사가 현실 감각을 잃게 된 경위, 그와 요정과 의 결합의 실패, 그리고 그의 현실과의 유리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시는 話者가 단도직입적으로 가을초원에 나타난 정신을 잃은 기사를 다음과 같이 질문함으로써, 극적으로 시작된다.

16) Patterson, p. 134.

O what can ail thee, knight at arms,
 Alone and palely loitering?
 The sedge has wither'd from the lake,
 And no birds sing. (11. 1-4)

그리고 話者가 물은 위와같은 질문을 기사가 거의 글자 그대로 12연에서 반복함으로써 키츠는 이 시를 끝마치고 있다.

And this is why I sojourn here
 Alone and palely loitering,
 Though the sedge is wither'd from the lake,
 And no birds sing. (11. 45-48)

이 시가 형식상 고도로 압축된 문학적인 답시라는 것을 고려에 넣을 때, 키츠가 이 시의 총 48行 중에서 8行(총 12련 중에서 2련), 즉, 전체 시의 6분의 1이라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 질문과 대답으로 할애했다. 그리고, 기사가 한 대답이 話者의 질문의 반복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키츠가 분명히 어떤 중요성을 이 질문과 대답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키츠는 왜 첫연과 마지막 연을 거의 비슷하게 구성했을까? 이 물음에 대한 한가지 답은, 첫 연과 마지막 연을 반복하여 이 두 연을 긴밀히 연계시킴으로써, 키츠는 이 시 전체에 순환 운동성을 준 것이다. 키츠는 시를 자체 내에서 일관성이 있고 통합성이 있는 하나의 문학적 구조로서 보았을 뿐 아니라, 시는 그 자체 내에서 우주와 자연의 유기적인 구조를 순환원리로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 키츠는 詩作의 三大 重要원칙을 얘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2nd Its touches of Beauty should never be half way therby [sic] making the reader breathless instead of content: the rise, the progress, the setting of imagery should like the Sun come natural natural too [sic] him—shine over him and set soberly although in magnificence leaving him in the Luxury of twilight. (*Letters*, I. 238)

이 인용문에서는 키츠는 하루의 전과정을 완전히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자연계에서는 해가 떠서, 정오가 되고, 해가 저서, 밤이 됐다가 다시 다음 날 아침에 해가 뜨는 것과 같은 순환원리가 공통적인 우주의 법칙의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 시(*La Belle Dame*)의 배경을 보면 키츠가 우주의 순환원리를 염두에 두었음이 분명하다.

이 시의 배경으로 깔려있는 가을을 예로 들어 보자. 배경이 된 가을은 위에서 든 순환원리를 그대로 내포하고 있지는 않지만, 좀 변형된 형태의 우주의 원리를 내포하고 있다. 가을은 이 시에서 충만과 공허, 결실과 조락의 계절로 話者에 의해서 묘사돼 있다. 이 시의 첫 연에서 가을은 “연못가에 있는 꼴풀도 시들어있고, / 노래할 세도 없는” 계절로 묘사된 反面, 또한 가을은 충만과 결실의 계절이기도 하다. 즉, “다람쥐 굴(창고)은 가득차 있고, / 추수는 끝났다.” 진통적으로 호수는 물의 근원으로서, 생명의 근원을 상징해 왔다. 그런데, 이 생명의 근원인 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꼴풀마저도 시들어있다. 가을의 황량한 경치는 세상의 끝을 말해 주기라도 하는 말세적인 느낌마저 준다. 그러나 좀더 멀리 그리고 좀더 깊

게 보면, 우리는 다람쥐가 그의 굴(곡창)을 충만하게 해 놓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다람쥐는 성장과 충만의 계절이 오기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곡창을 충만히 꽉 채운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곡창(*granary*)이라는 단어가 풍기는 음성상징성도 또한 자연현상의 충만과 성취를 나타내 준다. 예를들면 이 단어 속에 내포돼 있는 “g”, 비음 “n”, 그리고 “æ” 등은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이 단어가 풍기는 의미를 우리가 더욱 완전히 느끼게 만든다. 이런 의미에서, “*granary*”라는 말은 “*sedg*”와 “*wither’d*”와 대조를 이룬다. 이 후자의 단어들 (“*sedg*”와 “*wither’d*”)은 가을의 황량한 공허감과 처절함을 느끼게 한다. 예를 들면 이 두 단어들은 처절감을 느끼게 하는 “s”와 “ð” 발음을 갖고 있으며, 딱딱한 느낌을(그래서 생명이 죽었다는 느낌을)주는 “dʒ”음이 있다. 이 두 단어에 나오는 모음도 마찬가지로, “*sedg*”의 “e”와 “*wither’d*”의 “i” 모두 높고 강한 음으로서, 처절감과 황량감을 더해 준다. 이런 단어에 내포된 음들은 가을 경치의 황량감과 처절감을 더욱 높여 주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 본 바와같이, 이 시의 배경인 가을은 성장과 성숙이라는 개념에 대조하여 조락과 공허라는 반대개념을 대비시켜 내포하고 있으며, 이시에 쓰인 단어들의 음감은 이런 특질을 더욱 높여 주고 있다.

가을이 성숙과 조락이라는 두가지의 상반되는 특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話者 자신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話者가 사실은 보통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준다. 자연현상을 이렇게 보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서두의 몇 연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話者가 기사와 가을 풍경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話者가 범상한 인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그에게서 받는 강한 인상은 그가 이미 세상과 삶을 보는 데 있어, 자기 나름대로의 달관의 경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禪에서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세상을 분별심을 가지고 보지 않으며, 세상의 두가지 측면이 하나로 합쳐진 것으로 보며, 동시에 또한 두가지 측면을 따로 본다.”¹⁷⁾ 즉, 이 시의 話者는 이세상에는 두가지 상반되는 측면이 동시에 공존하여, 이 모두를 내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禪에서는, 깨달은 사람이란 이 세상을 충만되고 또한 공허한 것으로 보며, 의미가 있고 또한 무의미한 것으로 동시에 보는 사람인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두가지 측면을 동시에 편견이나 사심이 없이 보며, 이 둘이 서로를 내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시의 話者가 세계를 보는 눈도 禪에서 깨달은 사람이 갖는 안목과 비슷하다. 그는 가을의 세계를 봄에 있어, “호숫가에 있는 풀들도 말라 버렸고, 노래할 세도 없다”고 보는 反面, 동시에, “다람쥐의 곡창(굴)이 꽉 차 있으며, 추수는 끝났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話者에 대해 사실상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話者가 실의와 집착에만 빠져 있는 기사를 실의의 늪에서 끌어 내어, 자기 주위의 사물을 보는 눈을 다시 찾게 하는 일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하는가를 더 잘 알 수 있다. 처음에 우리가 만나는 기사는,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른다. 話者와는 대조적으로, 기사는 인생의 충만한 의미에서 완전히 유리되어, 자기가 조금 전에 차디찬 산 기슭에서 꾸민 꿈을 가슴에 안고, 그로 인한 고뇌에만 빠져있다. 話者는 처음 기사에게 이렇게 질문한다. “기사여, 도대체 무슨 일로 고심하오?” (O what can ail thee, knight at arms?). 여기서 “can”이라는 말로 話者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오? 당신이 세상을 좀더 알았다면, 당신은 지금 당한 일때문에 그렇게 고심은 하지 않을텐데”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그 다음에 話者는

17) Christmas Humphreys, *Zen Buddhism* (N.Y.: Macmillan, 1974), p. 109.

기사를 “홀로 창백하게 배회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기사를 묘사함에 있어, 話者는 이 짧은 시행에 流音(“l”)을 4번이나 사용함으로써, 기사가 지쳐있고, 좌절돼 있으며, 축늘어져 있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여준다.¹⁸⁾ 이 기사는 “아주 수척하고, 대단히 수심에 차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話者와 기사가 아주 잘 대조돼 있음을 느낄 수 있다. 話者는 키츠가 말하는 negative capability가 있는 사람인 반면에, 기사는 자기가 방금 겪은 경험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으로 묘사돼 있다. 따라서, 기사는 자기자신의 처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話者는 제 3련을 전부 할애하여, 이 기사가 아주 수심에 차있기 때문에 거의 죽을 지경임을 보여준다.

I see a lily on thy brow,
With anguish moist and fever dew;
And on thy cheeks a fading rose
Fast withereth too. (11. 9-12)

여기에서 묘사된 기사는, 자기의 신분애 어울리지 않게 대단히 비참하고 침담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유리돼 있고, 내부의 분열이 극심하며, 방향감각을 완전히 잃은 상태이다. 그는 어느 의미에서는 죽음을 상징한다.

그러면, 처음 3련에서 話者의 역할은 무엇인가? 話者가 하는 말로 미루어 보건대, 그는 기사를 자신의 코앞에 있는 집착에서 헤어나게 하여, 그로 하여금 현실과의 거리감을 회복하게 하여,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게하며, 또한, 기사 자신도 자연의 순환현상중의 일부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기사 자신이 그도 자연의 순환작용의 일부임을 인식한다면, 그도 세상을 충만하고 또한 동시에 공허한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환상의 처녀와의 결합이 유일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삶 자체도 그 나름대로 충분한 의미가 있으며, 그 속에는 존재의 충만함과 공허가 동시에 내포돼 있음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사가 자신의 경험 속에만 너무 깊숙히 파묻혀 있으므로, 話者가 하는 말의 의미를 처음에는 금방 알아 듣지 못하는 듯하다. 그러므로, 話者는 똑 같은 질문을 제 1련과 제 2련의 처음에 두 번 똑 같이 반복함으로써, 그가 질문하려고 하는 바가 기사에게 정확히 전달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話者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여 묻는 것은, 예수가 신약에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같은말을 두번 반복함으로써 자기 가 하고자 하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얘기를 하는 방법과 유사한 점이 있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보면, 禪의 수련과정에서, 선생이 제자에게 公案이라는 특수한 방법으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것과 같다고도 할 수 있다. 禪에서는, 수행자들이 선생으로부터 받은 公案을 가지고 오랫동안 생각하고 수행함으로써 자기나름대로 깨달아, 이를 대답할 수 있는 과정에 이르는 것이 곧 깨달음의 경지인 것이다. 그러므로, 禪에 있어서 公案은 수행자가 진리의 깨달음에 눈을 뜨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D.T. Suzuki의 말대로, 公案은 “禪의 진리에 눈을 뜨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생이 [제자에게] 제시한 하나의 서술이나 질문”¹⁹⁾을 말하는 것이다.

사실상, 話者는 그의 (“O what can ail thee”)라는 충격적인 질문을 통하여, 기사가 자기

18) Fred Inglis, *Keats*(N.Y.: Arco, 1960), p. 116.

19) D.T. Suzuki, *An Introduction to Zen Buddhism*(N.Y.: Grover, 1977), p. 102.

자신의 깨달음에 이르게 이끄는 것이다. 話者가 기사에게 한 질문을 풀어보면, “세상의 많은 것 중에서 도대체 무엇이 다른 사람아닌 당신을 괴롭히고 있느냐?”라는 뜻이 된다. 이렇게 두번 話者가 기사에게 질문함으로써, 기사 자신도 어느정도 정신이 들어 그에게 일어난 일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게 된다. 그러므로, 4련부터 12련까지는 話者가 기사에게 한 이 질문에 기사가 대답하는 것으로 돼 있다. 기사가 말하는 악몽같은 경험을 잘 들어보면, 우리는 기사와 요정과의 만남에 있어서, 어디가 어떻게 잘못 됐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4련부터 8련까지는 이 시의 일으킴 부분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기사가 요정을 어떻게 보며, 그리고 왜 기사와 요정이 결합에서 실패했는가를 알게 된다. 우선, 우리는 여기에 등장하는 요정이 기사의 묘사에서는 아주 모호하게 나타나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기사가 요정을 이렇게 모호하게 묘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와 요정과의 결합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기사의 잘못이며, 요정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다. Bate의 말처럼, 기사가 요정을 묘사한 것을 보면, 요정에게서 우리는 아무런 불길한 예감을 느낄 수가 없다.²⁰⁾ 기사는 요정을 단지 아주 예뻐다고 묘사하며, 다음과 같이 계속한다.

Her hair was long, her foot was light,
And her eyes were wild. (11. 15-16)

묘사가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묘사에서 강한 암시를 받게 된다. 예를 들면, 그녀의 긴 머리칼은 성적인 매력을 나타내 준다. 그녀의 가벼운 발걸음은 천상의 우아함과 순진성과 젊음을 상징한다. 그녀의 야성적인 눈은 그녀의 성격의 어떤 길들여지지 않은 자발성과 그녀의 행동에 있어서 때묻지 않은 면을 보여준다. 이런 특징들은 불길하거나 사악하다는 인상은 전혀 주지 않는다. 어느 의미에서건 그녀는 *Endymion*에 나오는 *Circe* 같은 인물로서는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째서 기사가 요정과 결합하려고 하는 시도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일까? 이 답은 필자가 생각하기로, 기사가 점점 지상의 현실과 유리돼 가면서, 이 신비의 요정을 천방지축으로 추구하는 데에 있다. 문맥은 다르지만, *Wasserman*도 필자와 비슷한 견해를 표명했다. 즉, 기사는 제5~6련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켰지만, 7~8련에서는 요정이 주도권을 잡게 됐다고 *Wasserman*은 주장한다.²¹⁾ 제5~6련에서는 기사가 주도권을 잡고, 자기의 위치를 잃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5~6련에서는 “I made...” 또는 “I set...” 등과 같이 기사를 나타내는 “I”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을 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7~8련에 가서는 요정에게로 주도권이 넘어간다. 그래서 행동의 주체도 기사에게서 요정에게로 넘어간다. 즉, “she found...” 또는 “she took...”라는, 요정을 나타내는 “she”라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

여기서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사와 요정이 서로 의사소통을 앓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기사는 일방적으로 요정과 그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런 예를 제 5련에서 보자.

I made a garland for her head,
And bracelets too, and fragrant zone;

20) Bate, *John Keats*, p. 480.

21) *Wasserman*, pp. 78-79.

She look'd at me as she did lovè,
And made sweet moan. (11. 17-20)

여기서 보듯이, 기사는 요정에게 꽃다발과, 팔찌와 그리고 향내나는 허리띠를 만들어 주지만, 요정은 단지 그(기사)를 사랑하는 듯이 보일 뿐이다. 보이는 것과 사실과는 Hamlet이 자기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지적했듯이 천양지차가 있는 것이다(“Seems, madam! nay it is”—*Hamlet*, I, ii, 76). 그러므로 요정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기사가 믿는 것은 순전히 그의 주관적인 추측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요정이 그를 사랑하고 있다하더라도, 그녀의 “달콤한 신음”은 무엇을 나타내는지 아리송하다. 예를들면, 이것은 그녀가 그의 사랑의 요청을 받아들일겠다는 뜻인지 어떤지 불분명하다. 또한 그녀의 이러한 “달콤한 신음”은 그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불행한 결과가 초래될 것을 예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다. 이런식으로, 제 6련에서는 기사가 점점 현실과의 유대를 상실해 가면서 그녀의 마술에 더욱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I set her on my pacing steed,
And nothing else saw all day long.

여기에서, 요정은 “달콤한 신음”소리를 내는 대신에, 역시 의미가 모호한 “요정의 노래”를 기사에게 불러준다. 그녀의 “달콤한 신음”이나, “요정의 노래”나 의미가 모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요정이 이런 “요정의 노래”를 부르는 의도는 무엇인가? 기사가 그녀에게 해준 것에 흠족하다는 표시인가, 또는 그녀가 마술을 그에게 부리기 시작한다는 표시인가?

기사가 현실과 점점 더 가속도적으로 유리되는 과정이 제 7련의 처음에 아주 잘 드러나 있다. 이제는 완전히 기사로부터 주도권을 이양받고나서, 요정은 그에게 음식을 제공한다.

She found me roots of relish sweet,
And honey wild, and manna dew. (11. 25-26)

그런 다음에 “그녀는, 정말로 이상한 언어로/나는 그대를 진실로 사랑하오라고 말했다”(27-28行). 여기서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 모호함을 느낀다. 그녀는 그가 알아듣지 못하는 어느 언어로 얘기한 것인가, 또는 그가 아는 언어로 얘기했는데, 그 말하는 방법(태도)이 이상했나, 또는 그렇지 않다면 그가 아는 언어이긴 했으나, 사투리였는가? 그리고 또한 그녀가 기사가 알아 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했다면, 어떻게 그녀의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하는 말을 그가 알아 들을 수 있었겠는가, 등등²²⁾ 그녀가 말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며, 그리고 그녀가 하는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의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기사를 그녀의 요정의 동굴로 데려간 뒤에, 그녀는 “아주 슬프게 울고 한숨을 쉬었다”(29-30行). 왜 그랬을까? 그녀는 기사가 예견하지 못하는 어떤 불행한 사태를 예견한 것일까? 또는 그들이 동굴에서 결합한 결과로 후에 그에게 어떤 불행한 결과가 오리라는 예감을 그녀가 갖고 있는 것일까? 기사가 그녀와 결합함으로써 그가 현실과는 완전히 유리됐기 때문에 그녀가 그것에 대해 슬퍼하는 것일까? 그가 현실과의 유대를 완전히 잃은 결정적인 계기는, 그가 “그녀의 길들여지지 않은 눈을/세번의 키스로”(31-32行) 감게 함으로써

22) Judy Little, *Keats as a Narrative Poet: A Test of Invention* (Univ. of Nebraska Press, 1975), p. 106.

이루어진다.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그는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것이다. 키츠의 시의 세계에서는 그녀는 기사의 이상적인 여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합은, 우리가 후에 보듯이, *The Eve of St. Agnes*에서 Porphyro가 Madeline의 꿈 속에 녹아 들어가는 것과는 아주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기사가 요정을 키스하고 결합한 뒤에, 그는 요정에 의해서 잠에 빠지게 되고,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에서 그는 안색이 창백한 왕과 왕자 그리고 또한 역시 안색이 창백한 무사들을 보게 된다. 이들은 기사에게 요정이 자기들을 마술에 빠지게 하여 그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경고한다. 기사가 이런 악몽에서 갑자기 깨어나자, 그는 자신이 차가운 산기슭에 있음을 발견한다. 이 모든 것은, 기사가 요정으로 상징되는 그릇된 이상적인 여성을 찾아서 그녀와 결합함으로써 생긴 결과이다. 기사는 요정과 진정으로 결합하기 위하여 헛되게 정력을 낭비한 나머지 현실과의 유대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사가 요정과의 결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현실과의 유대를 잃게 됐으므로, 그가 악몽에서 깨어났을 때에 그는 현실에서 자기의 위치를 정립할 수 없는 유리된 상태가 된 것이다. 그런 결과로, 그와 요정과의 결합은 좋은 결과를 가져 오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그녀가 끝내 환상적이고 신비적인 존재로 남아 있어서, 그가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그녀의 본성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가 이 세상에서 그녀와 결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결과적으로, 그가 꿈에서 깬 뒤까지도 그녀에게만 집착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에게 해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본성에 있어 요정이 Circe만큼은 불길한 존재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들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 즉, 이들은 남성을 방황하게 만들며, 그들을 만난 남성들이 그들에게 집착하게 한다는 점이다. 요정과의 결합을 이룬 후에, 기사는 꿈속에서 요정에 속아 넘어간 안색이 창백한 왕과 왕자들 그리고 또한 창백한 무사들을 보게 된다.

I saw pale kings and princes too,
Pale warriors, death-pale were they all;
They cried—"La Belle dame sans merci
Hath thee in thrall!"

I saw their starved lips in the gloam,
With horrid warning gaped wide,
And I awoke and found me here,
On the cold hill's side. (II. 37-44)

키츠는 *Endymion*에서도, Circe가 징그러운 동물로 변환 그녀의 연인들에게 먹이를 줄 때, 어느정도 비슷한 이미지리를 쓰고 있다. Circe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먹이를 준다.

Clusters of grapes, the which they raven'd quick
And roar'd for more, with many a hungry lick
About their shaggy jaws. (III. 511-513)

요정과 Circe가 마술에 걸리게 한 이런 사람들을, 아직도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여신과의 결합후의 Endymion과 대조해 보자. 여신과의 결합 후에 Endymio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Now I have tasted her sweet soul to the core
 All other depths are shallow: essences,
 Once spiritual, are like muddy lees,
 Meant but to fertilize my earthly root,
 And make my branches lift a golden fruit
 Into the bloom of heaven. (II. 904-909)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Circe나 요정과 결합한 남자들은 결합 후에 해로운 결과를 맛보지만, Endymion은 여신과의 결합 후에 더욱더 현실과의 연대를 굳게하고, 또한 초자연의 세계와도 창조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 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두가지 질문을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질문은, 이 시(*La Belle Dame*)가 여성원리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고, 둘째 질문은 이 시에서 키츠가 나타내려고 하는 점이 무엇이나하는 점이다.

첫째 질문—이 시가 여성원리를 이해하는 데 얼마나 중요하나?—을 대답하기 위하여 이 시에 나오는 세 인물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요정은 상상력의 악마적이고 오도하는 특성을 상징하는데, 이같은 특성은 기사가 이상적인 여성을 찾는 중에 자기 스스로 기만당함으로, 결과적으로는 본의 아니게 요정이 기사를 오도하는 결과가 된 셈이다. 기사가 현실을 도피하려고 할 때, 요정이 나타내는 상상력의 환상적인 측면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요정은 이 세상에 사는 존재가 아니므로, 신비적이고 환상적인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기사가 추구하는 바를 이 세상에서는 이루게 해 줄 수가 없다. 4련에서 6련까지에서 기사는 요정이 자기가 추구하는 이상을 실현해 주리라는 망상에 빠져 있음을 본다. 그러나 여기서 기사는 자기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I met a lady in the meads,
 Full beautiful, a fairy's child;
 Her hair was long, her foot was light,
 And her eyes were wild.

I made a garland for her head,
 And bracelets too, and fragrant zone;
 She look'd at me as she did love,
 And made sweet moan.

I set her on my pacing steed,
 And nothing else saw all day long,
 For sidelong would she bend, and sing
 A fairy's song.

요정과 결합하겠다는 꿈에만 집착하여, 기사는 점점 현실과의 관계를 끊고 드디어 제 6련에서 꿈의 세계에 들어가고 만다(“나는…하루 종일 그녀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오, / 기사가 靈化된 그녀는(말을) 옆으로(타고)앉아서/요정의 노래를 불렀지요”). 그가 만약에 현실과 인간의 본성을 자기가 들어간 환상의 세계에서 접합시키기만 했다면, 그가 들어간

환상의 세계는 전적으로 헤로운 것이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같은 경우의 *Endymion*과 *Porphyro*를 기사와 비교해 보면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Endymion*은 정체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환상의 여신과 결합한 후에 (*Endymion*, II, 904-906行) 인생과 生死에 대한 그의 통찰력이 더욱 강화된다. 마찬가지로 *Porphyro*도 *Madeline*의 꿈속으로 녹아든 뒤에 현실을 꿈과 융합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기사는 요정과 결합으로 인하여 오히려 현실에 대한 통찰력과 현실감각을 잃게 된다. 그는 요정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간적인 주체성을 완전히 잃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그가 인간으로서의 뿌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사가 요정과 결합하려고 하는 노력은 결과적으로 요정과 기사 모두에게 아무런 이득을 가져오지 못하게 된다. 기사의 요정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Cynthia*와 *Madeline*의 경우와는 달리, 요정은 “人間化”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사는 요정과 키스를 하고 결합한 뒤에 이 세상에서의 방향감각을 잃고 만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生の 意味를 발견해야 할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 된 셈이다.

기사가 악몽의 잠에서 깨어난 후, 그는 요정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 그는 자신의 정체와 본분을 완전히 잊고, 또한 자신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게 된다. 더욱이나 주목할 일은 자기 주변의 가을 경치로 나타나는 자연 현상인 계절의 변화까지도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상태로 있는 기사를 배경으로 하여 이 시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서 화자는 “기사여,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라고 똑같은 질문을 제 1련과 제 2련의 첫 줄에서 반복해서 물음으로써, 기사를 도우러 온 것이다. 기사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음으로써, 話者는 기사를 그의 참담한 좌절 상태에서 끌어내려고 한다. 話者의 질문에 답을 함으로써, 기사는 요정의 동굴에서 자기가 겪은 경험과 그 뒤에 낀 악몽을 다시 겪어 보는 계기가 된다. 요정과 만난 경험을 다시 겪음으로써, 기사는 자기와 요정과 경험의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잘 나타나는데, 여기서 기사는 話者의 처음 질문을 대답하는 형식으로 話者의 질문을 자기말로 바꾸어 반복한다. 그러므로, 기사는 자기의 경험을 다시 얘기하는 동안에 話者의 질문의 의미를 내면으로 의식화하게 되는 것이다. 자기의 경험을 다시 얘기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경험을 다시 반복하여 경험하게 되는 기회를 갖음으로써, 기사는 악몽의 경험의 나쁜결과를 깨끗이 없앨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또한 환상의 요정과 결합이 왜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났는가를 아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럼으로써, 기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좀더 새로운 눈으로 보는 안목을 기르게 된다. 제 1련의 2-4行을 거의 똑같이 마지막 연에서 반복함으로써, 키르는 첫 연과 마지막 연을 연결시킨다. 첫 연 2-4行은 다음과 같다.

Alone and palely loitering,
Though the sedge is wither'd from the lake,
And no birds sing.— (2-4행)

마지막 연의 46-48行은 다음과 같다.

Alone and palely loitering?
The sedge has wither'd from the lake,
And no birds sing.—

우리가 여기에서 볼수 있듯이, 2行의 끝에 오는 의문기호(?)가 46行에서는 콤마(,)로 바뀌었으며, 3行의 “has wither'd”가 “is wither'd”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話者의 의문이 기사의 대담으로 거의 변하지 않고 쓰였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話者의 의문이 기사의 대담으로 거의 변하지 않고 쓰인 의미는 무엇일까? 제 1련과 마지막 연에서 거의 똑같은 구문을 반복하여 씌으로써, 키츠는 기사가 요정과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의식상으로는 마치 helix같은 순환운동적인 변화를 겪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마지막 연에서 우리는 기사가 아직도 “홀로, 창백하게 배회하고 있는 것”을 보지만, 그는 우리가 제 1련에서 본 것과 똑같은 기사가 이미 아니다. 제 1련에서는, 기사는 자기가 지금 막 요정의 동굴에서 겪은 악몽에서 헤어날 수 못하고 있지만, 마지막 연에서는 어느 정도 자신의 위치를 되찾고, 자신의 경험을 정리할 수 있는 여유를 회복해 가고 있음을, 기사자신의 대담—話者가 한 물음을 반복하는 것—에서 읽을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La Belle Dame*가 갖는 중요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시에서 키츠는 그가 상상력에 대해서 두가지의 상반되는 감정을 동시에 갖고 있음을 분명히 읽을 수 있다. 기사가 이상적인 여인을 추구하는 것에서 우리는 키츠 자신이 상상력에서 그의 도피처를 찾으려는 경향을 한편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요정은 상상력의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또한 상상력의 환상적이고 파괴적인 측면을 상징한다. 이 시에서, 기사는 話者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그리고 착실하게 현실을 의식하기 시작하여, 話者가 한 질문의 참 뜻을 내면적으로 소화하기 시작하지만, 그러나 이 상태에서 기사는 여성원리가 아직도 자신의 생활원리로 인식되어 작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話者는 기사와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다. 그가 가을풍경을 보는 안목이라든가, 인생을 관조하는 태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는 여성원리가 話者의 생활원리로서 살아 움직임을 알 수 있다. 한가지 우리가 話者에게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가 그를 주의깊게 관심을 갖고 보지 않는 한, 그는 눈에 잘 띄이지 않고, 그의 목소리도 거의 들릴락 말락 할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話者가 이렇게 거의 보일락 말락하고, 들릴락 말락하는 것은 이 시에서 하나의 기법으로 간주하기보다는, 필자는 오히려 이것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고자 한다. 즉, 이것은 키츠의 여성원리에 대한 생각이 아직도 초기단계임을 나타내는 증거로 보고싶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이 단계에서는 키츠 자신도 話者가 나타내는 생활관이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듯하다. 키츠가 자신의 여성원리에 대한 생각을 *To autumn*에서 완전히 성립하기까지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했으리라. *To Autumn*에 나타나는 話者는 *La Belle Dame*에 나타나는 話者보다 훨씬 더 세련된 느낌을 준다. 그러므로, *To Autumn*에서는 키츠는, 그가 *La Belle Dame*에서 했던 것처럼, 자기의 여성원리에 관한 생각을 공개적으로 나타내기를 더이상 주저하지 않는다. *To Autumn*에서는, 키츠는 동시에 충만하고 동시에 공허하게 話者에게 보여지는 가을 경치를 단순히 묘사함으로써, 우리가 *La Belle Dame*에서 보는 것과같은 기사의 생생한 고뇌와 집착을 느끼지는 못한다. 그러나, 반면에 *La Belle Dame*에서는 키츠는 환상적인 꿈을 추적하는 데에 대한 욕망에 대해 두가지의 서로 다른 감정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다음으로 우리는 얼마전에 제시된 두번째의 질문—이 시에서 키츠가 표현하려는 점은 무엇인가?—에 도달하게 된다. 이 질문의 답은 우리가 키츠의 기사에 대한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자신을 기사와 아주 가까이 동일시함으로써, 키츠는 일종의 자기 자신의 정화과

정을 치루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함으로써, 그가 가진 여성원리에 대한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확고해지게 되는 것이다. 기사가 요정의 동굴에서 가졌던 경험은 키츠 자신이 열렬히 바랐던 것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그가 여성원리에 대한 생각을 건전하게 정리·발견시키는데에 꼭 필요한 경험이었을 것이다. 키츠 자신이 두개의 상반되는 세계—영원과 인멸, 이상과 현실, 존재와 무, 그리고 본질과 삶등—을 완전하게 두루 모두 경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가 점점 더 강하게 갖게 되는 여성원리에 대한 생각은, 기사가 요정에게 집착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것과같은 표현할 수 없는 고뇌의 용광로 속에서 시험되고 여과되어 정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이 시에서 키츠는 기사가 처음에는 요정에게 집착하여 현실을 망각했다가, 話者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천천히 다시 현실 인식을 되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런 과정을 시의 소재로 함으로써 키츠는 초자연의 영역에서 상상을 일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고 파멸적이란 것을 메타포적으로 보여준다. 우리가 또한 주목할 것은, 키츠의 여성원리에 대한 발전방향을 이 시에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대표적인 예를 집착에 얽매인 기사와 초탈한 話者와의 대조에서 찾을 수 있는데, 키츠는 이들 두 인물을 대비함으로써, 자신 속에 존재하는 갈등을 표현한 셈이다. 집념에 찬 기사는 어느 면으로는 초자연의 영역에서 상상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키츠의 한 면이라면, 세상을 일면으로만 보지 않고 어느 한 시점에서 세상은 두가지의 서로 상반되는 국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초탈의 경지에 다달은 話者는 또한 키츠의 다른 한면을 강력히 보여 주는 것이 된다. 키츠에게 있어서 여성원리의 완성은 이 두개의 다른 충동이 키츠의 내부에서 어떻게 화해되어 완성되는지의 문제이다.